

건강 칼럼

다양한 유방질환... 유방암만 주시하면 될까?

유방에서 발생하는 대다수의 질환은 통증이나 이상 징후 없이 감진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30대 이상의 여성이라면 주기적으로 유방검진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유방질환은 초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큰 무리 없이 치료가 가능하지만 방치하여 이 시기를 놓치면 유방암 등의 심각한 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김병성  
울산 제니스병원 원장

여성의 대표적인 유방의 질환에는 유선염, 유방 종양, 유두 분비물, 유방암이 있다. 첫 번째로 유선염은 유방에 생긴 염증으로 진행 정도에 따라 염증상태의 유선염과 농양을 형성하는 상태의 유방농양이 있다. 대부분 18세에서 50세 사이의 여성에서 발생한다. 유선염은 수유기의 염증성 질환과 비수유기의 염증성 질환으로 크게 구분한다. 원인은 유관에 세균이 번식하거나 유관 내용물이 유방조직으로 역류하여 생기는 경우가 있으며, 수유기에는 수유에 의해 생긴 유두의 상처로 세균이 침범하여 생기기도 한다. 유선염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발생 부위에 극심한 통증과 빨갛게 부어오르며 열감이 나타나고, 피부가 딱딱해지거나 멍울이 잡히며 38.5도 이상의 고열과 감기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여 유방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 두 번째로 유방 종양은 유방 내 세포에 이상이 생겨 필요 이상 분열되고 증식되어 커진 조직을 유방 종양 혹은 유방 혹이라고 한다. 유방 종양은 악성종양과 양성종양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악성종양은 곧 암을 뜻하며, 암은 점점 자라나고 다른 신체에 전이되며,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종양이다. 반면, 양성종양은 커지더라도 다른 신체로 전이되지 않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하면 된다. 유방 종양은 대표적으로 섬유선종과 유방 낭종(유방 불혹)이 있는데 섬유선종은 섬유, 결합조직으로 구성되는 양성 종양으로 유방에 생기는 가장 흔한 종양이다. 유방 낭종은 유관이 막혀 액이 흘러나오지 못해 유관 끝이나 유관이 풍선처럼 늘어나서 생기는 질환이

다. 유방은 모유가 나오는 신체 부위이므로 낭종이 잘생긴다. 그 외에도 섬유 낭포성 질환, 양성 석회화 침착, 엽상 낭상 육종, 관내 유두종이 있다. 세 번째로 유두 분비물은 크게 생리적인 것과 병적인 것으로 나뉜다. 생리적인 분비물은 정상적인 여성에게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병적인 분비물은 대부분 한쪽 유두에서만 나오며 분비물의 색깔이 간혹 맑은 색을 띠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핏빛이거나 탁한 색을 띤다. 또한 분비물이 일정하게 계속 나오지 않고 어느 때는 심하게 나오다 어느 때는 안 나오는 간헐적인 경우가 많다. 병적인 유두 분비물의 80% 정도는 관내 유두종이나 유관 확장증, 섬유 낭포성 질환 등 유방암이 아닌 양성 유방질환으로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으나 정확한 진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유방이 불편하고 통증이 있어 유방외과를 찾는 가장 흔한 증상은 유방 통증인데, 정상 생리 현상일 경우도 있지만 양성 유방질환으로 인해 유방과 겨드랑이, 팔 등에 통증이 발생한다. 대부분 유방 통증은 유방암과 관련이 적지만 비주기적인 통증을 느끼면서 유방에 멍울이 만져지거나 한 쪽 유방에만 통증이 나타되면 유방 전문의에 의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은 증상들은 유방 초음파 등을 통해 의심되면 조직 검사를 진행하여 양성 혹은 악성 여부를 정확하게 판별해야 한다. 조직 검사 또는 육을 제거할 경우 맘모톰 시술을 할 수 있는데 맘모톰 시술은 유방 진공흡입 생체검사 장비로 회전 칼이 부착된 바늘을 사용하여 초음파로 수술 부위를 확인하며 유방 조직을 잘라 적출하는 검사법이다. 최근에는 섬유선종과 같은 양성 혹은 수술로 제거하는 방법의 대체법으로 맘모톰 시술을 활용하기도 한다.

유방질환 중 악성종양인 유방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유방을 보존할 수 있으며 완치도 가능할 수 있다. 조기에는 대체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정기적인 진찰 및 검진이 필요하다. 때문에 유방암 예방과 완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방검진이 매우 중요하다.

사설

양오봉 전북대 총장 임용 후보자

전북대학교 제19대 총장 임용 후보자에 양오봉 공대 화학공학부 교수가 선출됐다. 양 교수는 김진 기독관리학과 교수와 치른 3차 결선투표에서 60.94%의 득표율로 총장 임용 후보자로 뽑혔다. 60세의 양 교수는 전주와 고교를 졸업하고 1995년부터 전북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과 한국태양광발전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총장 선거에 3번째로 도전한 양 후보자는 세일즈 총장을 비전으로 내세웠다. 전북대를 세계 100위권 대학으로 만들기 위해 대학회계 2천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연구비 2,500억 원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또 임기 내에 대학발전기금 500억 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북대 총장 선거에는 직선제 사상 가장 많은 8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후보들이 난립하면서 선거전은 초반부터 치열한 경쟁력을 예고했다. 이

에 따라 4년 전 선거처럼 후보들의 이합집산으로 여러 번수가 예상됐지만 이번은 일어나지 않았다. 양 교수는 1차 30%, 2차 47%, 3차 60%의 득표율로 출구 1위를 달렸다.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투표는 반영 비율이 교수 70%, 직원 20%, 학생 10%였다. 벌써부터 새로운 총장 임용 후보자에게 거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전북대학교의 새로운 도약을 희망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양오봉 총장 임용 후보자는 선거 때 불거진 학내 갈등을 극복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과제에 나섰다. 양 교수는 앞으로 교육부의 인사 검증을 통과해야. 내년 1월쯤 대통령으로부터 총장에 최종 임명된다. 새 총장은 소동하고 책임지는 총장으로서 대학의 연구비와 발전기금을 크게 늘리고 지역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업무개시명령 국무회의 의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업무개시명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지난 2004년 관원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대통령은 전국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이유를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은 시멘트 운송 차량에 우선 발동됐다. 국토부가 현장조사를 거쳐 명령서를 송달하게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화물차주 등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면 운송사업자 허가가 최대 6개월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앞서 2020년 대한의사협회 파업 때는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는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불모로 삼는 것이라고 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파업은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입니다."라고 했다. 문제는 화물연대가 업무개시명령에도 파업을 이어가기로 하면서, 물류 차질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이 화물노동자에게 제언령에 준한다고 반발했다. 화물연대는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지속해서 시행하고, 적용 대상 품목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등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기업들의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속히 합의점을 찾기를 바란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젤렌스카 여사 "우크라이나는 행복하지 않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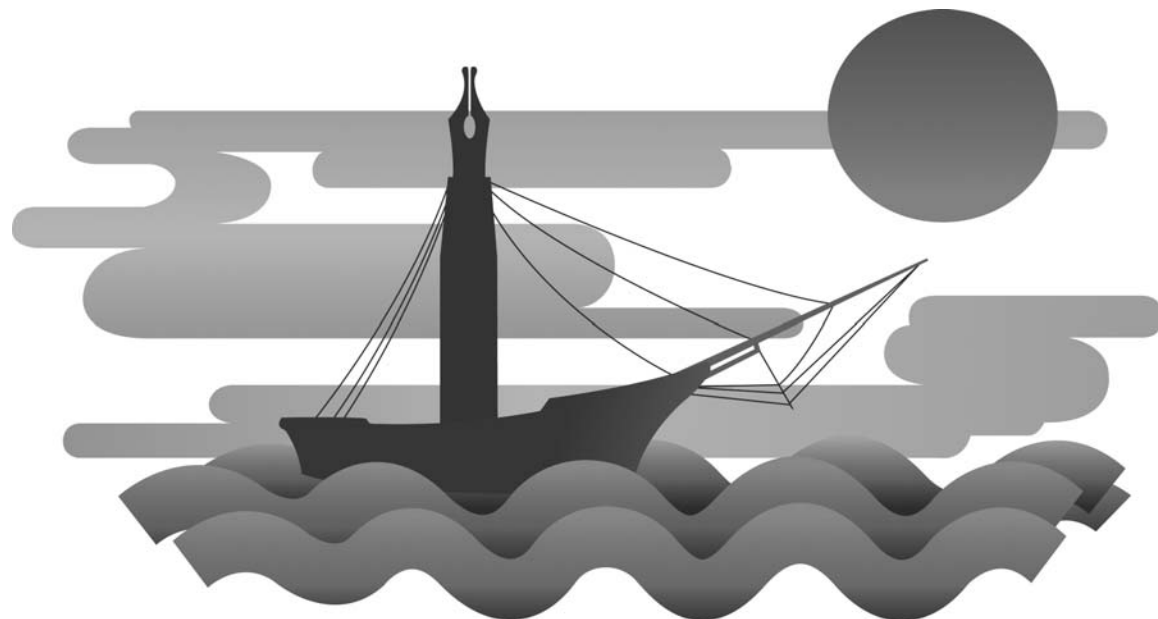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가운데) 여사가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의회에서 연설을 마치고 의원들의 기립박수를 받고 있다. 젤렌스카 여사는 "(2차 대전 시) 영국이 항복하지 않았듯이 우크라이나도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승리와 함께 정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중국에 자유를 · 공산당의 종식을"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있는 중국 영사관 부근에서 시위대가 중국의 제로 코로나 봉쇄에 반대하는 전 세계인의 시위에 연대해 시위하고 있다. 이 시위에는 자유와 시진핑 주석의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